

발표 요약문

항만 연결성

얀 호프만

UNCTAD 선임행정관

키워드: 연결성,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 UNCTAD, 서비스, 선단 배치

전 세계 컨테이너항에서 연간 처리되는 수억 개의 컨테이너의 또 다른 이름은 글로벌화의 “검소한 영웅”이다. 높은 빈도의 정기적인 해운 서비스를 통해 구현되는 효율적이고 연결성 높은 컨테이너항은 운송비를 포함한 무역 비용 최소화, 공급망 연결, 국제 교역 지원에 핵심이다. 따라서 항만의 성과는 국가의 무역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선박이 항만에서 소요하는 시간을 절감하게 되면 이는 항만에는 항만 인프라 지출 절감, 선사에는 선박 자본 비용 절감, 화주에게는 재고 보유 경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UNCTAD는 컨테이너항 성과 측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정기선사 연결성 지수 (LSCI)를 개발해 글로벌 정기선 해운 네트워크 내에서 각국의 위치를 파악해왔으며 2019년 7월에는 최신 국가별 LSCI 통계를 발표했다. 다음 달인 8월 7일에는 항만 LSCI(port LSCI)와 국가별 기항 건수와 통상적 재항 시간, 평균 선박 크기와 선령 정보 등을 담은 새로운 포괄표 등 두 가지 신규 데이터 군을 출범했다.

항만 연결성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음의 일곱 가지 정책 조치가 항만 연결성 향상의 핵심이다. 1) 디지털화 2) 국내, 지역,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3) 경쟁 촉진 4) 항만 현대화 5) 배후지 확대 6) 지속가능성 증진 7) 항만 연결성 모니터링

선박 재항 시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정책 수단이 항만 성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1) 기항 최적화: 선박이 정시에 도착해야 한다. 너무 일찍 도착하면 항만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고속 운항 시에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다. 적시(in time)가 아닌 정시(on time) 도착이 기항 최적화 이니셔티브의 목표다. 디지털화 활용은 선사와 항만, 화주, 복합수송 서비스 제공사 간에 데이터 교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선박이 부두에 도착하면 당국의 서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3) 항만 작업: 신속하고 안정적인 적하 및 하역 작업을 위해서는 인프라와 기술력, 인적 역량 등의 상부 구조에 투자해야 한다. 항만 운영 및 자산의 민영화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할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신중히 계획해야 한다. 투자 고려 시, 총 물류비용도 고려해야 한다.